

순천대 양궁부, 회장기대학실업양궁대회서 금3·동1개 획득

여자 리커브 대학부서 서보은 3관왕 차지

60m, 50m 금메달·혼성단체 금...단체전 銅

순천대학교 양궁부가 전국대회에서 메달 4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양궁협회(회장 박명국)는 지난 7일 광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제40회 회장기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순천대 양궁부가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여자 리커브 대학부 개인전에 출전한 순천대 양궁부 서보은은 50m에서 344점을 획득해 이예진(창원대, 342점)과 김예후(경희대, 339

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60m에서도 2위 김서영(경희대, 342점), 3위 이윤지(한국체대, 341점)를 제치고 346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차지, 2관왕을 달성했다. 여자단체전에서도 순천대학교 최민영, 탁해운, 장인서, 서보은이 출전해 8강전에서 광주 여자대학교(최예진, 김정윤, 오예진, 이수연)를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경희대에 아쉽게 패

해 창원대와 함께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서 혼성단체전에서도 순천대 소보은과 김상현이 8강에서 대구 계명대, 4강에서 경기 경희대를 제압해 결승에 올라 서울 한체대를 제압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서보은은 50m, 60m, 혼성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 순천대학교 김문선 양궁부 코치는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앞으로 열린 대회와 올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순천=김승호기자



덕수고 김태형, 노히트 노런 작성...9이닝 15K 무실점

10일 청원고 상대 대기록 달성

덕수고 2학년 우완 투수 김태형이 노히트 노런을 작성했다. 김태형은 10일 서울 구의야구장에서 열린 2023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서울권A 청원고와 경기에 선발 등판, 9이닝 동안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막았다. 볼넷 2개만 내주며 삼진은 15개나 속아냈다. 투구수는 117개다. 이날 29타자를 상대한 김태형은 3회와 9회에만 볼넷 하나씩을 내줬

을 뿐 나머지 이닝을 모두 삼자범퇴로 가볍게 정리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유소년 선수 보호 및 부상 방지 제도로 투수의 1일 최대 투구수를 105개로 제한한다. 하지만 노히트 노런, 퍼펙트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기록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투구할 수 있다. 덕수고는 노히트 노런 활약을 펼친 김태형을 앞서며 청원고를 4-0으로 물리쳤다. 김태형은 경기 후 "처음 선발투수라고 들었을 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지만 5이닝이라도 잘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동료들을 믿

고 던진 것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동료들이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게 독려했어서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저를 믿고 계속 던질 수 있게 해주신 덕분에 노히트 노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협회는 김태형에게 주말리그 후반기 종료 후 각 권역별로 진행될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뉴스

서채현,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6차 대회 볼더링 은메달



서채현(19·노스페이스클라이밍·서울시)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 첫 메달

청)이 2023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월드컵 시리즈에서 은메달을 땀다. 서채현은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브릭센에서 열린 IFSC 6차 월드컵 볼더링 결승에서 4개 과제 중 3개를 해결(3T 4Z 3 9)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승은 4개 과제를 완주한 미국의 나탈리아 그로스먼(4T 4Z 12 12)이 차지했다.

서채현의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첫 메달이다. 손목 부상 여파로 서채현은 월드컵 1차 대회 14위, 2차 대회 29위, 4차 대회 25위, 5차 대회 8위에 그친 바 있다. 마수걸이 메달이 성공한 서채현은 오는 14-18일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리는 월드컵 7차 대회에 나선다. 7차 대회에서는 볼더링과 함께 리드도 출전할 예정이다. 뉴스

심준석, 미국 루키리그서 데뷔전...4이닝 8K 퍼펙트

피츠버그와 75만달러에 계약하고 미국행



지난해 고졸 신인 최대로 손꼽히며 미국에 진출한 우완 강속구 투수 심준석(19)이 프로 데뷔전에서 퍼펙트 투구를 선보였다. 피츠버그 산하 루키리그 팀인 플로리다 콤포렉스리그(FCL) 파이리츠 소속인 심준석은

1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크턴의 파이러릿시티 콤포렉스에서 벌어진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루키리그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심준석은 완벽한 투구를 펼쳤다. 4이닝 동안

8개의 삼진을 슈아내며 한 명의 타자도 내보내지 않는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다. 1회초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기분 좋게 출발한 심준석은 2회초에도 삼진 2개를 슈아냈다. 나머지 한 명의 타자는 외야 뜬 공으로 잡았다. 3회초에도 삼진 2개와 내야 땅볼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든 심준석은 4회초 세 타자를 외야 뜬공과 삼진으로 물리쳤다. 심준석은 5회초 교체됐다. 덕수고 시절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뿌려 주목을 받은 심준석은 지난해 KBO리그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피츠버그와 75만달러에 계약하며 미국행을 택했다. 시즌 개막 이후 연습경기에만 나섰던 심준석은 이날 처음으로 공식 경기를 치렀다. 미국 정식 경기 데뷔전인 셈이다. 마이너리그의 다른 레벨보다 시즌이 짧은 루키리그는 이달 6일에야 개막했다. 심준석은 첫 공식 경기부터 퍼펙트 투구를 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심었다.

오타니, 이틀 연속 대포 작렬...홈런 1위 탈환 눈앞

18홈런 오타니, 1위 애런 저지 1개 차 추격...7경기 연속 안타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29)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오타니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시즌 18호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0-3으로 끌려가던 3회 2사 1루에서 두 번째 타석에 등장한 오타니는 시애틀 선발 브라이언 우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월 아치를 그려냈다. 홈런 타구속도는 104마일(167.4km), 비거리는 400피트(122m)였다. 이틀 연속 홈런을 친 오타니는 아메리칸 리그 홈런 1위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19홈

런)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1회말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오타니는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8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오타니는 8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삼진으로 물러났다.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오타니는 최근 7경기 연속 안타를 날렸다. 시즌 타율은 0.281로 소폭 낮아졌고, 시즌 46타점, 39득점째를 기록했다. 에인절스는 2-6으로 완패했다. 6연승에 실패한 에인절스(35승 31패)는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3위에 머물렀다.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이 11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1-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맨시티, 빅이어까지 12년...만수르 15년 결실

UEFA 챔피언스리그 12번 도전 만에...2008년 팀 인수 뒤 최고 시즌

'잉글랜드의 왕' 맨체스터 시티가 드디어 '유럽의 제왕'이 됐다. 맨시티는 11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 밀란과 2022-2023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후반 23분 로드리의 선제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맨시티는 올 시즌 EPL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을 포함해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트레블(3관왕)을 달성하며 진정한 유럽의 제왕이 됐다. 맨시티는 UEFA에서 역대 열 번째 트레블 기록을 남겼다.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구단주가 맨시티를 인수한 2008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맨시티는 맨유의 그늘에 있었다. 맨유와 맨체스터 데비를 벌이는 라이벌 관계라고는 하지만 맨시티의 기록은 맨유에 비해 보잘 것 없었다. 1992-1993 시즌 EPL 창설 멤버였지만 강등과 승격을 거듭하던 맨시티는 2002-2003 시즌부터 계속 EPL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만수르 구단주가 취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위권 팀이었다. 그러나 만수르 구단주가 취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2008-2009 시즌부터 만수르 구단주의 돈주머니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당시 최고의 재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호비뉴를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최고의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결실을 맺는다. 2010-2011 시즌 FA컵 우승과 함께 EPL에서 3위를 차지하면

서 1968-1969 시즌 이후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발을 들여놓았다. 또 2011-2012 시즌에는 처음으로 EPL 정상에 올랐다. 이후 맨시티는 단 한차례도 4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계속 따냈다. 2011-2012 시즌 EPL 첫 우승 이후 12시즌 동안 맨시티는 무려 7번의 리그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맨시티에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이라는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20-2021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발을 들인 지 무려 9년 만이었다. 그러나 이때도 첼시에 0-1로 지면서 빅이어를 들어올리지 못했다. 맨시티는 절치부심했다. 만수르 구단주는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하며 골잡이로 명성을 쌓고 있는 엘링 홀란을 사들였다. 홀란 없이도 EPL 무대를 제패하고 있던 맨시티는 날개를 달았다. 홀란은 EPL 무대에서 36골을 넣으며 이적 첫 시즌부터 주름잡았고 맨시티는 단숨에 EPL과 FA컵까지 점령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도 승승장구했다. 조블리그에서 4승 2무의 전적으로 무패 통과한 맨시티는 16강전부터 우승까지 무패 가도를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 밀란과 경기는 결승전답게 어려웠지만 마무리 능력에서 앞서며 드디어 꿈에 그리던 빅이어를 들어올렸다. 만수르가 맨시티 경영권을 잡은 뒤 15년 만에 유럽의 제왕이 되는 순간이었다.